

■ 르포 태안 '강진보물선' 발굴 현장

국보급 청자 줄줄이... 환호·감탄

강진에서 만들어진 고려청자를 실은 난파선을 발굴하는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족리 대섬 앞바다는 환호와 감탄사로 가득했다.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를 새로 쓴 '목간'(木簡·기록을 위해 사용하던 나무 조각) 등 희귀유물들이 잇따라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오전 9시30분 목포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중발굴팀(팀장 문환석)이 18t급 탐사선 '씨뮤즈호'(Sea-muse) 갑판을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무게 24kg의 납덩이를 몸에 매달고 바다에 뛰어든 잠수사

청난 양이다.

지난 1976년 중국 원나라 선박 '신안선'에서 중국 '목간'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고려시대 '목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 가칭 '태안선'의 '목간'에선 '탐진(강진의 옛 이름)에서 개경의 대정(종 9품) 인수(사람 이름)에게 보냄(耽津○在京塚正仁守)'이라는 글씨가 확인됐다. 고려시대인 11세기 후반~12세기 중반, 청자를 싣고 강진을 출항한 배가 개경으로 향해 중 침몰했음을 반증하는 물증이다.

목포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태



목포국립해양유물전시관 '태안선' 수중발굴팀이 지난 17일 태안군 근흥면 정족리 대섬 앞바다에서 강진산 고려청자를 인양하고 있다. 이곳에서 찾아낸 '태안선'에는 최상급 고려청자 3만여 점 등 국보급 보물이 가득 실려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 태안=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바구니 가득 찬 유물 조심조심 인양 2만360점 햇빛 '강진産' 기록 선명

박용기(48)·이동길(36)씨가 청자를 담은 바구니를 '배 위로 끌어당겨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감각한 바닷속에 잠겨있던 '천년의 빛깔'이 햇빛에 드러났다. 이날 처음 올린 바구니에는 깨지고 찌그러진 청자 접시 30점과 모양새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청자 접시 15점이 담겨있었다. 두 번째 인양에선 화장품을 담아 두는 청자 분합(粉盒) 18개가 나왔다.

문환석(46) 과장·김병근(45) 학예연구사가 개펄을 씻어낸 뒤 한 곳으로 모으면, 양순석(36) 연구사가 이를 다시 분류했다. 현재 2만360점의 청자가 발굴됐고, 분류·기록 작업도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2004년 군산 십이동파도(8천129점)·2003년 군산 비안도(2천900여 점)에서 발견된 도자기에 비해 엄

안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지난 7월7일, 주꾸미잡이 어민 김용철(58·충남 태안)씨가 5월15일 청자 접시를 찾아낸 곳에서 긴급탐사를 벌이던 잠수사들이 철제 솔·향아리·장작 등을 찾아낸 것이다. 배 안에서 선원들이 사용하던 유물이 발굴된 것은 인근에 좌초된 배가 있다는 증거였다.

전시관 측은 이때부터 '주꾸미 청자'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바다 밑바닥을 뒤지기 시작했고, 지난 8월4일 '태안선'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다.

문 과장은 "인근 해역에서 도자기를 찾았다는 어부들의 제보가 잇따라 이곳 해역이 '한국 역사의 타임머신'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청자 발견 주꾸미 '동상' 건립 신고한 어민 2,100만원 포상

지난 5월15일 어부 김용철씨는 청자 접시를 휘감고 있는 주꾸미 한 마리를 잡았다. 김씨는 곧바로 이 청자를 문화재청에 신고했고, 목포국립해양유물전시관 측은 '태안선'을 찾아냈다.

그렇다면 김씨와 주꾸미는 어떤 보상을 받을까?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61조(국가귀속과 보상금)에 따르면 모든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

며, 발견한 사람은 그 평가액의 50%를 보상받는다.

김씨가 신고한 '청자음각 소형대접' 1점의 평가액은 200만원으로,

보상금은 100만원. 여기에다 2만여 점 이상의 고려청자를 실은 배가 발견됨에 따라 김씨는 포상금 1등급에 해당돼 보·포상금을 합해 모두 2천

1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태안군도 내년 중 고려청자 발굴에 '일등 공신'인 주꾸미를 위해 '주꾸미 동상'을 건립해줄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를 발견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제42조 : 발견 신고 의무 조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홍도해역 조업 중국어선 전복

선원 9명 모두 구조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30km 해상에서 중국선적 69t급 유자망 목선 '요영어 35492'호가 전복됐다.

사고선박은 이날 오전 10시에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 전복됐으며 인근을 향해 중이던 파나마 선적 3만6천t급 '뉴 챔피언'호가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목포해경은 헬기 1대·경비함 1척과 특공대원 등 100여 명을 사고해역에 투입해 수색작업에 나섰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9명은 인근 해역에서 함께 조업을 하던 다른 중국어선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선박은 지난 16일 오전 9시 우리 측 EEZ에 입역한 다는 것을 통보했었다"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 당일 서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으며, 3~4m의 높은 파도가 일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조선족 부부 한국 국적 취득위해...

위장 이혼→한국인과 위장 결혼→몰래 동거

국적 취득을 위해 이혼한 뒤 한 국인들과 위장결혼 한 조선족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에 살던 오모(42)씨와 아내(40)는 지난 2005년 9월 초 중국 정부에 이혼 서류를 냈다. 지난 1999년부터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서 일한 적이 있는 아내가 "한국인과 결혼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혼을 한 것이다.

오씨의 부인은 지난 2005년 9월 말 경기도 일산서 같이 일한 박모(45)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먼저 서류상 결혼을 했다. 그 후 3개월 뒤, 남편도 1천만원을 주고

아내 소개로 알게 된 대리운전사인 김모(여·51·광주시 서구)씨와 혼인했다.

위장결혼 뒤 이들은 지난해 2월 입국, 경기도 고양시에 원룸을 얻어 함께 살며 공장 등에 취업했다. 하지만 조선족 부부가 이혼한 뒤 비슷한 시기에 한국인과 다시 결혼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달미가 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1일 오후 부부를 공전자 기록 등 부실 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받고 위장 결혼을 한 김씨와 박씨 등 2명도 같은 혐의의 불구속 입건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컨부두서 크레인 붐 '뚝'

5만t급 선박 덮쳐 '아찔'

지난 20일 오후 2시25분께 광양시 도이동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높이 70m의 갠트리(gantry) 크레인의 붐(boom·팔)이 부러지면서 덴마크 선적 5만t급 'MYTILINI'호를 덮쳤다.

이 사고로 배에 실려있던 컨테이너 박스(20feet) 22개가 부서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끝내고 붐을 들어올리던 중 붐을 지탱하는 철재 와이어가 끊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영광서 20대 간호사 숨져

경찰, 주사물질 성분 의뢰

21일 오전 11시30분께 영광군 영광읍 모 아파트에서 김모(여·28)씨가 숨져있는 것을 남편(35)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대학 모임이 있어서 20일 나갔다가 다음날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었으며 옆에 주사기가 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영광 모 병원 간호사인 김씨가 평상시에도 몸이 아프면 스스로 진통제 주사를 놓았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주사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성분을 의뢰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나원침 (7337) 김장동



다들 물어봐 신협재 KCC

DS건설(주) KCC-철도, 철도, 도로, 아파트

KCC광도, 시스텔광도, 생산, 시공

▶ 02-2625-1114 ~ 1120 ▶ 02-2625-1121 ~ 1129

(주)본드나리 KCC-철도, 철도, 도로, 아파트

실리콘, 방수공, 철척재, 타이브

▶ 02-2625-1114 ~ 1120 ▶ 02-2625-1121 ~ 1129

가솔 아내 찾기위해 허위 납치신고

○광주 북부경찰은 21일 사제 빛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가 가출하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허위 납치신고한 남편 박모(51)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회부.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일 새벽 5시38분께 북구 용봉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48)가 "여보! 나 살려줘"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며 112에 납치신고를 했다는 것.

○박씨는 경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아내가 지난 16일 퇴근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고 진술했으나, 조사결과 두 사람은 이날 부부싸움을 한 뒤 가출한 것으로 확인.

○경찰은 박씨의 진술과 달리 휴대전화에 아내와 통화한 기록이 없는 점을 수사에 여러 집중 추궁,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받았다고.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4.999만원부터

신협재 KCC

DS건설(주) KCC-철도, 철도, 도로, 아파트

KCC광도, 시스텔광도, 생산, 시공

▶ 02-2625-1114 ~ 1120 ▶ 02-2625-1121 ~ 1129

(주)본드나리 KCC-철도, 철도, 도로, 아파트

실리콘, 방수공, 철척재, 타이브

▶ 02-2625-1114 ~ 1120 ▶ 02-2625-1121 ~ 1129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들리게 하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모든 난청을 치료합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dogday.co.kr

무엇보다도 가격입니다. 무엇보다도 품질입니다.

상담전화 1588-8499 080-222-0100